

우리가 써 내려간
당신과 써 내려갈

Blank

Produced by 위대한 캄
덤



* RaomAtti



INDEX

● ————— ● ————— ● ————— ●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YLC 수업	YI 수업	함께한 시간들	일상을 담다



한 칸을 채우며

YLC

(YMCA Learning Center)

YLC는 캄보디아 YMCA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총 6개의 반이 존재합니다.

YLC에서는 크메르어뿐만 아니라 영어, 가라데, 댄스 수업 총 4종류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으며 또 한복 종이 접기를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영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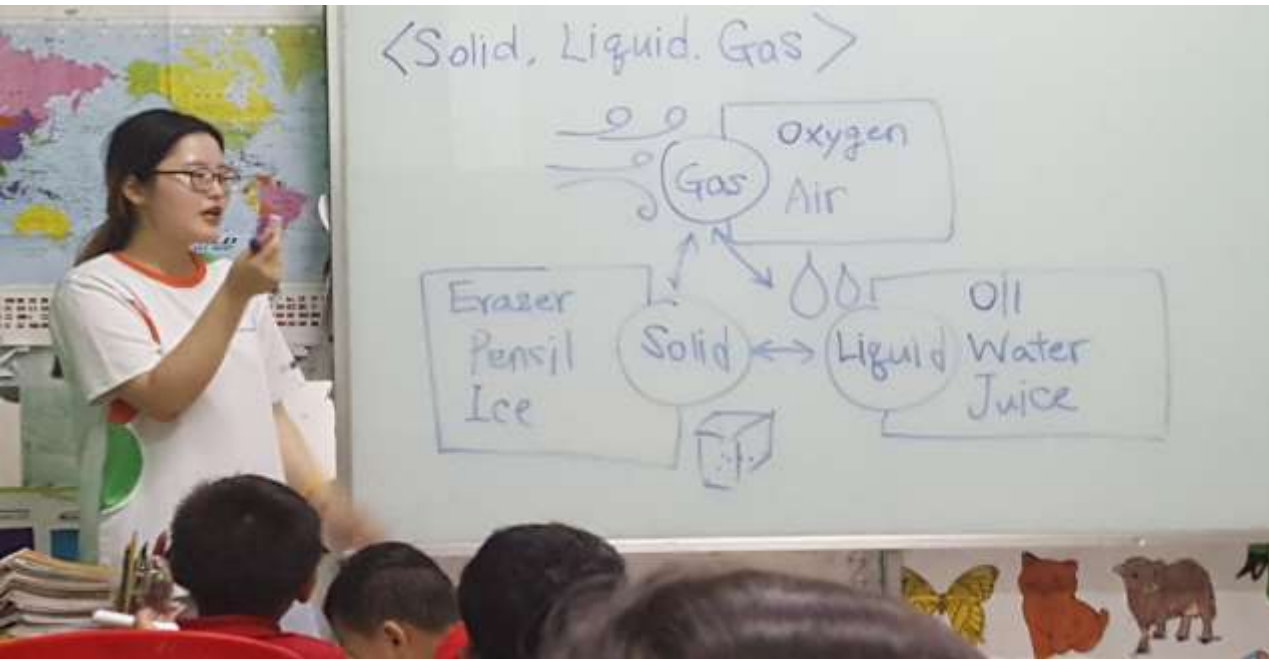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영어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는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단순한 수업 진행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미술과 영어를 결합하거나, 음악과 영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학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영어와 수학 그리고 크메르어만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학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총 2시간의 수업 진행으로 1교시에는 이론을 가르치고 2교시에는 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종이 꽃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수업을 하였습니다.

미술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정해진 틀 속에서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향상시켜주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발표시켜 의사표현 전달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표현 전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육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따분한 교실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스포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10월 11월 매주 화요일 YLC 야외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바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추면서 흥미를 유발시켰고 풍선, 축구공, 인형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악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에게 공부 이외에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음악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4살부터 7살까지 그리고 8살부터 13살까지 총 2개의 반을 가르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로 몸과 도구를 이용하여 음악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시켰고, 8살부터 13살의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팝송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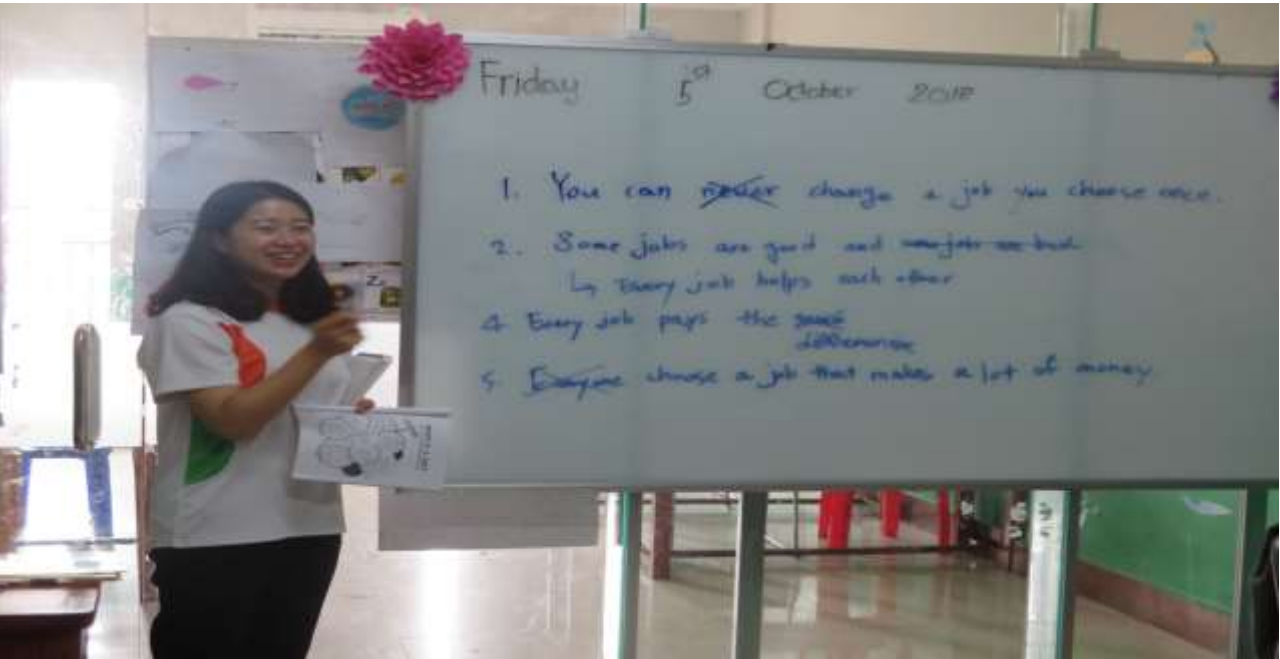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처음에 캄보디아에 왔을 때부터 심각하다고 느낀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에 대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파악하고 논의 한 뒤, 이에 알맞은 대안을 생각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직업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주변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학생들과 같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또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개념적으로 직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직업들이 있는지 교실에서 충분히 논의 한 뒤,
밖으로 나가 동네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에게 경제란 무엇인가? 노동의 개념과 수입, 시장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구매해볼 수 있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아이 돌봄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3~5세의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알파벳과 기초적인 단어를 통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총 3교시의 수업으로 1교시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춤과 함께 영어 동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3교시에는 영어 단어와 관련된 숙제를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라온아띠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대상인 환경 관련 캠페인을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사정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고, 대상을 바꾸어서라도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환경에 관한 아이들의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총 3차의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1차 수업에서는 프로그램 소개, 2차 시에는 페트병 재활용하여 꽃 만들기, 3차 시에는 시상 및 수업 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칸을 채우며

YI

(Youth Institute)

YI는 캄보디아 YMCA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부터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YI는 담당자 Nimey를 중심으로
현지 대학생 봉사자와 해외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팀 또한 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RaonAtti

위생 교육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상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생수업을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과 함께 하였고, 이를 습관화 시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손 씻기와 양치질을 중심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비누, 칫솔 그리고 치약을 구비해 두었으며 어떻게 손을 씻는지 어떻게 양치질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정보화 시대에 알맞게 컴퓨터를 통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접해보고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아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기본적인 타이핑 연습부터 워드를 통한 문서 작성법, YOUTUBE를 통한 영상 시청법, Google 계정 만들기 등을 해봄으로써 컴퓨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환경 교육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이 항상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함께 그 습관들을 고쳐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학교 주변, 집 앞을 아이들과 함께 지나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체육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집 앞의 기차길, 돌무더기와 쓰레기가 뒤섞인 바닥, 전기 톱으로 일하고 계신 아저씨들을 보면 Y.I 주변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축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무엇을 가르치기 보다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 시설 체크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그 외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영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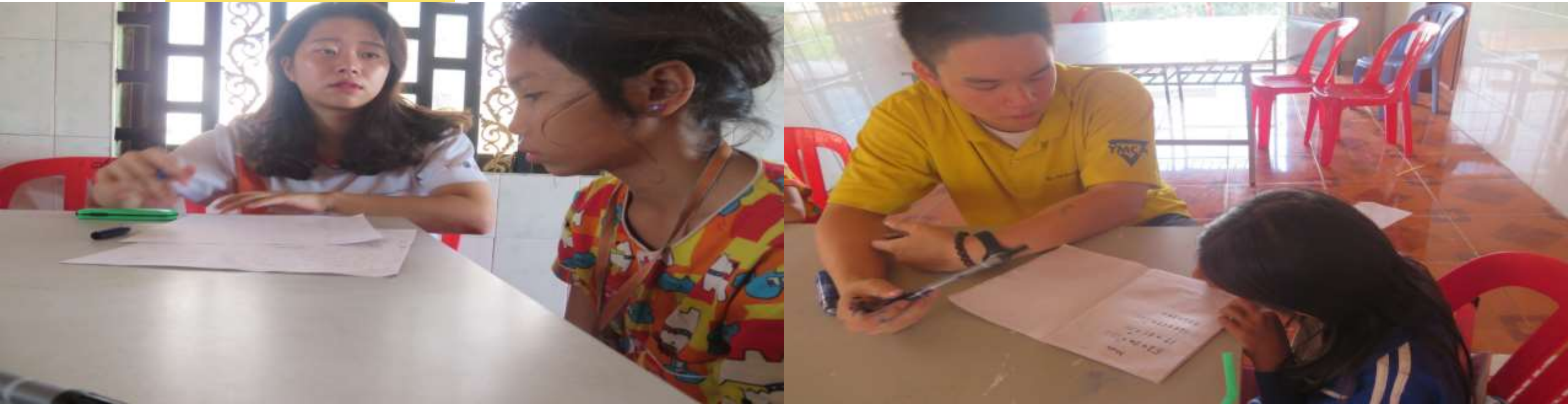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캄보디아에서 영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직 알파벳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하여 알파벳과 관련된 영어 단어로 리듬을 만들어 알파벳에 익숙해 지도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종이로 직접 꾸며보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수학을 배우지 못해서 간단한 돈 계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 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학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나이대별로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1:1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기 보다는 간단한 사칙연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요리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가르쳐 주어 스스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주먹밥, 볶음밥, 고기 요리 등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뒤에는 모든 학생이 다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악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노래와 율동을 같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가사와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려준 후 이를 반복하여 따라부르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래에 맞는 율동도 가르치고 함께 추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Gardening 수업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이 주변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키워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식물을 심고, 자신이 심은 식물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며 직접 식물을 길러보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제 교육



왜 이런 수업을 진행했나요?

-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노동이란 무엇인지, 수입이란 무엇인지 교육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나요?

- 직접 가짜 돈을 벌어서 노동과 수입의 개념을 알려주고 시장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열어 자신들이 직접 번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설보수(Painting)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물 내부 창문, 벽, 천장 등 모든 부분에 페인트 작업을 하였으며 비어있는 공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시설보수(Cement)



YI주변에는 깨진 유리, 쓰레기, 날카로운 돌 등 바닥에 위험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 앞에 시멘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캠핑(Camping)



캠핑을 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 싶었습니다. 요리, 텐트 짓기 등을 통하여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캠프파이어, 물놀이를 통해 함께하며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세 칸을 채우며

함께한 시간들

교육 봉사 뿐만 아니라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캠페인 등 YLC와 YI의 선생님들, 현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Halloween Party In YLC and YI

10월 31일 Halloween을 맞아 YI, YLC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Halloween 분위기에 맞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다양한 게임, 간단한 다과와 함께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Christmas Party In YLC and YI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YLC, YI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지호의 산타 복장 착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캐롤에 어울리는 아이들의 춤과 노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포장한 선물 나눔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알차고 재미있게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문화교류 파티 (Exchange Party)

저희 캠프, 덴마크 친구들 그리고,
현지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문화교류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각 나라의 게임을 함께
즐겨보고 또 같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나라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lean City Campaign



현지 청년들과 함께 변화가인 River Side에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Slogan 만들기 부터 직접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같이 캠페인을 하다 보니 서로가 많이 가까워지고 캄보디아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쓰레기 줍는 모습 >

< 캠페인을 돌아보며 >

수영장

호주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가난한 형편으로 수영장에 가본적 없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 하기도 하였지만 금방 적응하여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많은 시간을 놀지는 못하였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Camp In Stung trey

대만에서 온 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지방인 “Stung Trey”에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방문한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Painting, 아이들을 위한 위생, 체육, 과학, 댄스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지내면서 비록 편안하지는 않지만 사람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칸을 채우며

일상을 담다

봉사 활동 이외의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보낸 시간들을 담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문화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많은 곳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our In Siem Reap



톤레삽 호수



시엠립
Child Care Center

캄보디아에 온 뒤 처음으로 시엠립에서 문화탐방과 시엠립 YMCA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유적지인 ‘앙코르 와트’, 동남아시아 최대의 호수인 ‘톤레삽 호수’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엠립 Child Care Center에도 방문하여 이틀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our In Kampot

캄보디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여행으로 Kam Pot을 다녀왔습니다.
지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1KG에 8달러 밖에 안 하는 “게”를 3KG이나 먹고,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또 배 위에서 일몰을 보며 팀원들과 같이 그 동안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만 달려왔던 일상에 모처럼의 휴식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Visit 'Killing Field'

불과 40여 년 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계기록문화유산 Killing Field 뚜얼 슬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Killing Field를 견학 하였으며, 당시의 슬프고 아픈 역사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잘못된 이념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학교 건물 〉



〈 복도 〉

River side

캄보디아 프놈펜 중앙에 흐르는 Riverside는 메콩강의 한 줄기로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지나 캄보디아에 흐르는 강입니다.

Riverside 주변으로 캄보디아 성, 다이아몬드 놀이동산, Night Market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러 관광하러 많이들 오는 곳입니다.

특히 'Water Festival' 기간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축제를 즐깁니다. 저희 캄팀도 water festival 기간에 방문해서 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Birthday Party

머나먼 타지에서 3명의 생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희진, 재완, 현지)

라운아띠를 하면서는 국내 훈련 당시의 채윤의 생일
까지 총 4명의 생일을 함께 했습니다.

생일에는 평소에 잘 가지 못하였던 식당에 가서 맛있
는 것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저희끼리의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 희진 생일 〉



〈 현지 생일 〉



〈 재완 생일 〉



빈칸 을 채우면서

하고픈 말들은 많지만

RaomAtti 로서 캄보디아에서 살아간다는 것

지호의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너무 그리웠다.
한국의 음식, 가족, 친구들 등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한국에 도착했다.
막상 한국에 오니 캄보디아에서 좋아했던 음식, 따
뜻한 날씨,
정이 많던 학생들, 친구들 등이 그리우고 생각이 난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지쳤지만
또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경
험과 함께 즐거웠고 잊지 못 할 추억을 만들었다.



Jiho

채윤의



대략 150일간의 시간들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내 감정들을 제대로 바라 볼 수 있었다. 낯설었지만 외면하지 않고 바로 보는 나는 처음이었으니까.
라운아띠가 아니었다면 느껴보지 못 했을 감정을 나이보다
이르게 느꼈고 좋은 공부도 되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받아들이고 다시 고칠 수 있는 용기도 배우고.
캄보디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하나씩 되 돌아보니 정말 소중한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A ya

희진의



5개월이 지났다. 5개월 동안의 나는 최선을 다 한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해준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열심히 했던 순간들도, 조금은 지쳤던 순간들도 모두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당시에는 큰 일이라고 느껴졌던 일들도 지나고 나니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다 추억이 되었다. 짧다면 짧은 5개월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났던 인연들은 참 소중했고, 즐거웠다. 이젠 또 다른 내 생의 빛나는 순간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날 인연들이 기다려진다.



Chiva

재완의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되돌아 보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으면서도 또 별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나에게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감히 함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한국으로 귀국한 지금 내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너무나도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많은 생각을 들게 해주고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캄보디아에서의 시간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Samnan

g

현지의



낯설기만 했던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점점 캄보디아 YMCA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캄보디아의 일상이, 나의 원래 일상이었던 것마냥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안아 들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싶어 매번 집까지 찾아가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문득, 이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매번 즐겁지는 않았다. 정말 많이 울었고, 너무 슬픈 일도 많았다.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우리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았고, 그냥 그 당시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Linda

당신의 을 듣고 싶은

“지금까지 위대한 캠팀이었습니다!”